

 **동양시멘트**

**동양건아 '세계로 미래'로 간다**

올해부터 신입과장들에게 현지체험을 통한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사고의 전환, 외국어학습 동기부여 및 활용능력 제고,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도전적인 기업 풍토 조성을 위해 배낭여행을 통한 해외연수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가대상은 토익과 JPT성적이 일정 수준에 오른 신입과장들로 2인1조로 나뉘어 업무에 따라 편한 날짜를 골라 10일 일정으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으며, 여행지역은 유럽 일원, 일본 및 중국 가운데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업계 최초로 레미콘부문 ISO9001 인증 획득**



지난 4월 4일 업계 최초로 동양시멘트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슬래그 시멘트의 ISO 9001인증에 이어 레미콘 부문에서 ISO 9001인증을 획득, 한국품질인증센터(KSA-QA)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ISO 9001인증의 의미는 제품불량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제적인 품질 보증으로서 콘크리트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근거에 의한 업무 수행, 업무에 대한 재조명, 회사의 노하우 축적, 효율적인 기술 이전, 영업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일본 아소(ASO)시멘트사와 정기기술교류회 개최**



지난 4월23일과 24일 양일간 일본 아소(ASO)시멘트사와의 제4회 정기기술 교류회가 개최되어 아소시멘트에서 6명, 동양시멘트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활발한 기술교류의 장을 펼쳤다. 이날 기술발표는 아소시멘트측의 '폐에너지의 시멘트 공정내 활용', '일본에서의 녹스(NO<sub>x</sub>)규제 등과 동양측의 '킬른 쉘디자인', '북평공장 제어시스템의 현대화' 등으로 진행되었다.

**춘계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전사원의 자발적인 분임조 활동 분위기 조성을 통해 품질경영 확산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6 춘계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지난 5월 16일 삼척공장 구내 식당에서 삼척공장 10개 분임조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금상은 '공장 발생폐유의 처리설비 제작으로 환경개선'이란 주제로 생산1부 생산1과 회오리분임조가 차지했다. 은상은 설비관리부 전기1팀 알뜰분임조와 생산1부 생산2과 새마을분임조, 설비관리부 기계2팀 맷돌분임조, 자원부 조쇄과 봉황분임조가 동상을 차지했다.



BRP 추진발대식 가져



지난 3월4일 우덕창 부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본사 팀장급 이상 관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3층 임원회의실에서 BRP추진의 공식적인 출발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 전업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한 BR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업무는 본사를 비롯 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업무를 대상으로 단위업무 최적화, 핵심 프로세스 재설계, 정보시스템 혁신으로 신프로세스에 맞는 조직제도 관리체계를 수립, 경영 인프라의 혁신을 이루어 냈으로써 세계 기업에 걸맞는 경영체질 강화를 이루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쌍용 산업용 SL재, IR52 장영실상 수상

쌍용 산업용 SL(Self Leveling)재가 <IR52 장영실상>에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식이 4월26일 서울과 학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 우덕창 부회장은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IR52 장영실상패>를 받았고 개발주역인 중앙연구소 신제품개발실 이종열 실장 등 2명이 표창장과 기념메달을 받았다. 이번에 IR52 장영



실상을 수상한 쌍용 산업용 SL재는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지난 93년 1월 개발에 착수에 95년 11월 국산 신기술로 지정된 일반용 SL의 응용제품이다.

우덕창 부회장, '96 한국경영자상 수상

우덕창 부회장이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경영대상 전문경영인 부문에서 올해 한국의 경영자로 선정되어 5월 23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6년 한국경영자 대상시상식에서 <한국의 경영자 상>을 받았다. 90년 제8대 사장에 취임한 후 시멘트 중심의 사업구조를 신소재, 전자재, 주택개발, 진단 보수, 환경자원, 자동차관리 등 활발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사업 기틀을 다지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수상케 된 것이다.



한일시멘트

지난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단양공장에서 열린 제 12회 전사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단양공장 장비과의 에스맨 분임조가 3연패를 차지했다. 단양공장 및 지역 분공장에서 총 30여개의 분임조가 참가한 가운데 열

린 이날 경진대회에서 예스맨 분임조는 "누유 수거로 환경개선"이라는 테마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경진대회 3연패하는 최초의 분임조가 되었다.



제19회 통상산업부 장관기 상공인 테니스대회2부에서 한일시멘트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후지쯔의 공동주최로 5월 30일에서 6월1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대회에서 제일합섬, 한국도로공사, 삼성전자 등이 출전한 2부에서 4연승을 거두면서 우승기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15회와 16회대회에 이어 3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첫날 벌어진 개인전에서 한일시멘트는 청년부에서 우승을 최강부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다.

한일시멘트 성남공장이 지난 5월 10일 무재해 5배를 달성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달성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무재해 5배 달성은 지난 91년 2월1일부터 지난해 11월16일까지 총1,570일 동안 무재해를 거듭으로써 이룬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한일시멘트는 이번 수상과 관련 성남공장에 사장표창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지난 5월 9일 단양공장의 3호 킬른 개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총 50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5개월만에 완공된 이번 공사는 미국 홀러사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 기존 SP방식을 NSP방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번 공사로 연간 85만톤의 시멘트를 증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현재의 635만톤에서 720만톤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노사단합체육대회 개최



지난 5월17일 매포읍소재 매포중학교에서 본사 및 공장임직원과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춘계 노사 단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단양공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그간 노조활동 및 분임조 활동에 뛰어난 면모를 보인 우수사우에 대한 표창 및 시상에 이어 축구예선을 거친 4개팀과 배구팀간의 경기를 시발로 하여 줄다리기, 떡먹고 달리기, 맥주 5백cc 먹고 달리기, 자녀어린이 디스크 경연대회 등 시종 화기애애하고 다채로운 게임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의 종합우승은 공무부가 차지했으며, 응원상은 광산부가 차지했다.



### 6N호 킬른 증설기공식

성신양회는 5월 28일 6N호 킬른 증설 기공식을 가졌다. 총소요자금 3,500억원, 년산 330만톤 규모로 주공급업자인 일본 미쓰비시사에 의해 97년12월에 증설이 완료되면 성신양회는 1,03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난 5월1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35개 주요 구매업체를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처음으로 실시되어 구매업체와의 상호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상호협조를 통한 동반자 역할의 인식을 물론 거래관행에 대한 내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종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구매업체 대표자 40여명이 참석, 거래 전반에 걸친 질의 응답으로 토로되었으며 이곳에서 토로된 사항은 개선 지원체

제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4월 27,28일 양일간 열린 제3회 노동부 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근로자 탁구대회 강원도 예선에 당사 탁구회들이 참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는 직장인 상호간의 협력과 단결의 장을 만들어 생산성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코자 마련된 것으로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단체전 및 개인 단복식에 모두 참가, 복식 3팀이 모두 우승, 준우승을 차지하며 단체전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20일 노사화합 체육대회가 옥계공장에서 실시되었다. 노동조합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체육대회는 옥계공장 전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가 치러져 노사간 상호 이해관계를 긴밀히 하기도 하였다. 이날 최규남 수석 부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합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 단합된 한라공동체를 이룩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